



Maria Goetschalckx here. I am scientist and lawyer, advocate and sister. I am grounded in God's creation and deeply honored to be her agent as I try to express the Christ's preference for the poor, the structurally invisible. The journey has been most interesting. I grew up in a lively family with twelve children, in Meer, a small town on the Dutch border in rural post war Belgium. We lived next to the church. We had active mission circles. As a first grader, how better to practice my knitting skills than in making bandages, to be used to nurse lepers. We also knitted baby clothes for the African missions. Our church/town, had over a dozen missionaries, including my aunt, who shared their stories when they would come home.

I spent three years in a convent boarding school. Wednesday afternoons we could join groups that interested us and I went to science to learn the chemistry behind the magic tricks I remembered from grade school. And I joined a social action group that went into the city to help poor single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he point came where I am ready to go the university, but my parents said no. In 1967 when I learned of an opportunity to go to the US as an *au pair* and learn English I grabbed it. In the US I worked full-time and attended university, earning an Associate Degree, then a Bachelors in chemistry with a math minor, then a Master of Science in physical chemistry. I still am equally fascinated by the world I touch and feel, the world so small that we can see it only with instruments and by the universe so large that we are still discovering how it came into being. Graduate school in Charlottesville, VA, was a pleasure like vacation. But it did not satisfy fully. My personal vocation felt bigger. I realized that, I am an extreme introvert who prizes her personal privacy yet, I needed to publicize that the founding impetus for all the social action was – and is – the realization that I am written in the palm of God's hand, an unforgettable space that is not crowded though shared with every created thing and being. So, I am to be sister to all and most of all to the marginalized poor.

I researched religious orders and their charism. I found myself at one with Louise and Vincent. Then I looked at women religious in that tradition, asked for the SC *Constitutions* and the rest is history. Since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I have taught chemistry in high school and at the university level. I moved on from teaching at Seton Hill, to law school and working as an immigration attorney. I was fortunate to find City University of New York that made it a point to look at the world from the bottom up. Laws and regulations always reflect a worldview. In preparation for professional work I took two clinics: battered women and immigration. I stayed on in the NY area and worked with battered immigrant women and asylees while also working as a law graduate doing general immigration law in a large firm.



In 1995 I had the opportunity to go to Gang-Jin and teach English at St. Joseph's. My experience was that the overlap of Korean culture and Flemish-Belgian culture is much deeper than that between Flemish-Belgian culture and the US. I felt at home and will always be grateful for this experience.

I have had the opportunity to be part of the UN system, as the representative for the ECOSOC accredited NGOs of the Brothers of Charity, my brother's community, and of the SC Federation. As an Associate immigration lawyer in the Office of Thomas E. Moseley, I do immigration work: administrative advocacy on behalf of employers seeking to hire an immigrant worker; on behalf of citizens who have married a foreigner and want to raise their family in the US; on behalf of asylum seekers (those who ask for refugee status AFTER they have made it into the US); and on behalf of battered or abused immigrants who assert rights existing (in part) thanks to my work as a law student. Our office works to assist people in canceling removal proceedings or avoiding deportation. I also stay current on social issues in the US (race, class, environment, guns, poverty, violence, homelessness) and tug for concerted action by the Sisters of Charity around these issues.



I am nearly 68 and thinking about what I will do in the next stage of my life, how to maximize my impact in the next twenty years, God willing. I can manage Spanish and a tour in Ecuador appeals to me. We will see. I look forward to, in the end, rejoining the owner of the hand that created me, holds me and sends me.



저는 마리아 고척 수녀입니다. 과학자이며 변호사이고 활동가이자 수녀입니다. 하느님의 창조물에 대한 지식을 가진 과학자로서 특히 가난한 이들과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우선적 선택의 삶을 살아 내는 일을 할 수 있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꽤 흥미로운 제 삶의 여정을 살펴보자면, 먼저 저는 벨기에와 네덜란드 국경지대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Meer에서 자랐는데 형제가 모두 열 둘이나 됩니다. 그 때 성당 바로 옆에 집이 있었고 활발한 미션 활동을 하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나병환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붕대를 만들기도 하면서 뜨개질 솜씨를 키워나갔고 어느 때는 아프리카에 보낼 아기 옷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닌 성당/마을에는 열 두 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배출했는데 거기엔 저희 이모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고향에 올 때 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셨어요.

저는 삼 년 동안 수녀원 기숙학교에서 지냈어요. 매 주 수요일 오후에는 그룹활동을 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기억에 남아 있는 여러 마을에 사용된 화학 방법을 배우려고 과학부에 들어갔어요. 봉사부에도 들어가서 가난한 미혼모들을 돕기 위해 시내에 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에 진학할 때가 되었는데 부모님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1967년 미국에 오페어(au pair: 외국 가정에 입주해서 아이 돌보기 등 집안일을 하고 약간의 보수를 받으면서 언어를 배우는 여성을 일컬음)가 되어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미국으로 건너 와서 온종일 근무하고 대학도 다녔고 드디어 준학사학위(2년제 대학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화학(학사)을 전공하고 수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했고 물리화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만지고 느끼는 이 세상에 대해 참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도구를 통해 바라 볼 수 있는 이 세상이란 게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만물의 생성을 탐구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샬롯스빌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그 곳에서의 시간은 마치 휴가를 보내는 듯 흘러갔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로는 저의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더 의미 있고 원대한 소명이 제게 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전 여전히 지금도 무척 내성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지만 그 당시 저는 사회활동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는 강한 내적 충동을 느꼈어요. 그리고 창조된 모든 것들과 더불어 지낸다 해도 결코 손상되지 않는 공간인 하느님 손바닥에 깊이 새겨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 수녀가 되어 모든 사람들, 특히 소외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여러 수도회와 은사를 살펴봤고 루이즈 성녀와 빈첸시오 성인에게 끌렸습니다. 그분들의 전통을 사는 수녀회들을 알아본 후 사랑의수녀회 회헌을 읽었습니다. 수녀회에 입회 한 이후 줄곧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쳤어요. 이후 씨튼 힐에 교직생활을 하다가 로스쿨로 진학했고 현재 이민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립대학에 다니게 된 건 정말 행운이었어요. 그곳에서 세상에 대해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배우게 될 수 있었습니다. 법과 규제는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전문성을 쌓기 위해 저는 매맞는 여성과 이주민 관련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뉴욕시에 거주하면서 이들과 함께 일하면서 한 대기업에서 일반 이민법 관련 일을 했습니다.



1995년 한국에 가서 성요셉여고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제가 가진 네덜란드-벨기에적 문화적 배경이 미국보다는 오히려 한국과 더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은혜로운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고향처럼 매우 편안했습니다.



저는 또 UN의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사랑의선교회(Brothers of Charity-제 남자 형제 중 한 명이 이곳 수사님입니다)와 사랑의수녀회연합회가 파견한 NGO 대표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E. 모슬리 사무실에서 이민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그와 관련된 일 즉,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을 대신한 행정 업무, 외국인배우자들 둔 시민들과 그들의 가족부양 관련 일, 망명신청자(미국에 망명한 이후 난민지위를 요청하는 이들), 매맞는 여성 혹은 폭행당한 이주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대생이었을 때 했던 경험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강제추방이나 철거를 당해야 하는 이들을 위한 도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여러 사회문제 (인종, 계급, 환경, 총기, 빈곤, 폭력, 노숙자)에도 관여하면서 사랑의수녀회가 합심해서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8세라는 나이에 접어들면서 저는 제 인생의 다음 단계를 어떻게 지내야 하나 고민하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앞으로 20여년 동안 무슨 일을 하면서 이 삶을 잘 살아갈 것인가 말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스페인어를 할 수 있어서 에코도르에 가는 일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는지 두고 봐야겠죠. 저를 창조하시고 지켜주시며 이끌어주시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리라 고대합니다.